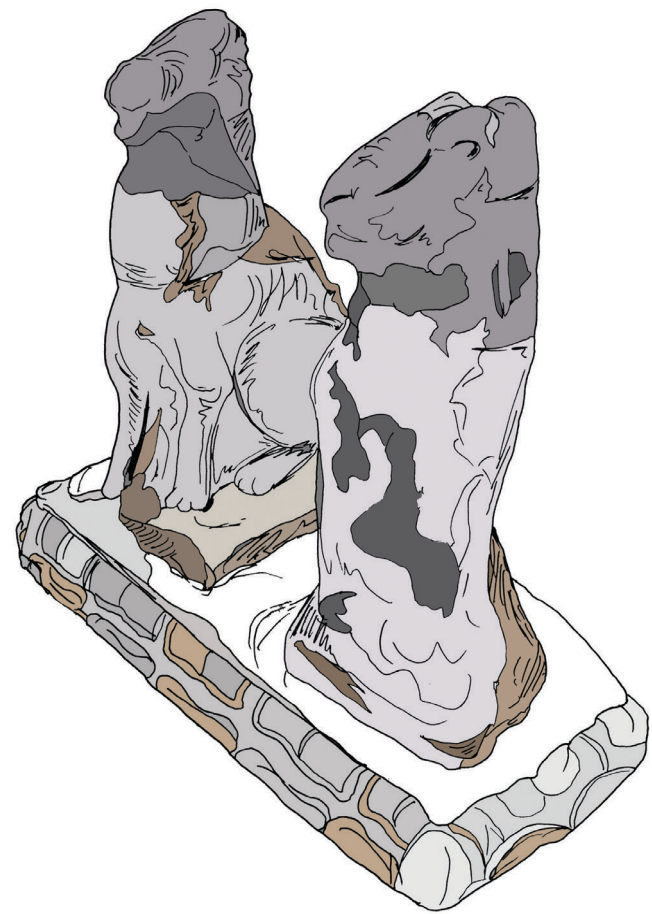




배종훈의 명상가툼

‘세월 담긴 석상(石像)’

문수전 계단 옆에, 형체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석상이 있다.
 시간이 그 형상을 모두 흘러버렸지만, 분명 네발 달린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다. 세조의 목숨을 구한 고양이를 기려 만든 석상이었다.
 폐사지의 석물은 남아 그 자리의 시간을 말하고 있기에 유달리 사랑스럽다. 부처의 얼굴이 남아 있지 않은 석불, 흐릿한 연꽃문양, 날개의 일부가 남은 비천상 등을 보면서 그 자리에 있었을 과거의 시간을 상상하고, 내 마음대로 그 모습을 그려 넣어본다.
 가만히 고양이 석상의 머리에 손을 올려보니 차가운 돌의 기운이 손을 타고 가슴을 시원하게 한다.



우승미의 불교창작동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㉞

푸른빛에 마음자리 내어주어라

* 죽음이란 이런 것인가.
 나는 바람처럼 이리로 저리로 슬러 다녔다. 시간도 공간도 이 세계에서는 의미가 없었다. 과거의 어느 곳에 머물렀다가 낯선 곳, 낯선 존재들 사이에 놓여 있었다. 어느 곳 하나 쉴 곳이 없었다. 무수한 빛과 색채의 세상. 때로는 강렬하고 투명한 빛이 두려워 도망치고, 때로는 희미하게 어른거리는 빛에 이끌렸다.
 “무상아!”
 시구 스님께로 달려갔다. 스님은 종종 내 이름을 불렀다. 스님이 내 이름을 부르면 나를 쫓는 무리들,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것들, 잿빛 연기를 피워 울리며 나를 두렵게 하고, 욕망하게 하며, 분노하게 하는 무리들이 일순간에 사라졌다. 스님은 너력바위 위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 계셨다. 반쯤 감은 눈빛이 고요했다.
 “네게 보이는 모든 것들은 실재가 아니다. 그것은 환영이며 꿈같은 것이다. 너의 업이 만들어낸 그림자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것에 이끌리지도 말아라. 네 본래의 마음자리를 생각해라.”
 스님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나는 스님이 마음으로 하는 소리를 들었다.
 복슬이는 자기 자리에 엎드려 눈을 꼭 감고 있었다. 내가 떠난 것을 알고 있을까.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착하고 순한 개야. 부디 슬퍼하지 말기를. 서로 목줄에 묶여 있어 활이주고 보듬어줄 수 없었지만, 내 아픈 몸과 마음

음을 어루만져주어서 정말 고마웠다.
 검둥이가 슬금슬금 다가왔다. 용케도 목줄을 푸는 데 성공한 모양이었다. 검둥이는 콧구멍을 벌름거리며 복슬이의 기색을 살폈다. 복슬이가 검둥이를 노려봤다. 콧잔등에 잔뜩 주름을 잡고 으르릉거리다가 캉, 하고 날카롭게 짖었다. 검둥이는 꼬랑지를 내린 채 뺨를 뒷걸음질 쳤다. 내가 뭐라고 했더니, 너 같은 무지렁이는 복슬이의 신랑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저만큼 도망을 치고서도 미련이 남았는지 쉬 떠나지 못하고 어슬렁거리며 검둥이를 향해 꽃방귀를 뀌었다.
 * 일주문 밖에서 추레한 사내가 휘청거렸다. 손으로 아픈 다리를 짚으며 걸음을 디딜 때마다 잘 굽혀지지 않는 다리가 허공에 호를 그렸고, 운뭉이 여린 가지처럼 흔들렸다. 그는 이따금 걸음을 멈추고 꼬질꼬질한 소매로 이마의 땀을 닦았다. 걷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고행이었다. 정작 힘든 것은 그의 성한 다리인 것 같았다. 성한 다리 한 짝에 그의 무게와 더불어 온 우주의 무게가 실려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몸을 낮추고 사납게 으르렁거렸다. 그에 대한 적의는 훈이 되어서도 사라지지 않았다. 아주 오래전에도, 또 지금도 나에게는 그에게 맞설 힘이 없었다. 그것이 나를 비참하고 두렵게 만들었다.
 그날, 시구 스님이 출가를 결심했던 날, 그도 나도 불구가 되었다. 나는 다리와 가슴뼈가 부러져



그림 · 강병호

평생 한쪽 다리를 들고 살아야 했고, 그는 목숨을 건졌지만 다리를 잃었다.
 시구 스님과 마주 앉아서 그는 오래도록 검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그것은 말이 되어 나오지 못

했다. 캄마른 그의 몸은 자루처럼 너부러졌다. 그의 얼굴은 온통 검은 빛이었고, 인비늘이 허영게 붙어 있었다.
 “내가 정말 미안했다. 나를…… 용서해다오.”
 스님은 말이 없었다. 그를 바라보는 스님의 눈빛에는 두려움도 분노도 보이지 않았다. 고여 있는 물처럼 고요하고 맑았다.
 스님은 그에게 삼배를 올렸다. 절 한 번에 사위가 밝아지고, 절 두 번에 그윽한 향내가 났으며, 절 세 번에 고요한 진동이 주위를 감쌌다.
 * 맏소사! 저 돌이 도대체 무얼 하고 있는 걸까. 복슬이가 검둥이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그 시커먼 덩어리가 복슬이 위로 타고 올라갔다. 복슬이는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았다. 복슬이에게는 고통도 기쁨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자신을 맡긴 듯 보였다.
 어찌하여 마음이 풀여오르는 것일까. 이제 복슬이와 나는 다른 세상에 있는데, 어찌하여 저 검은 개를 향해 엄청난 질투심이 불타는 걸까. 검은 무리들이 내 뒤를 쫓았다. 잿빛 연기가 몽게몽게 피어오르는데, 어느 곳 하나 피할 곳이 없었다.
 나에게 발이 있었더라면 복슬이에게 갈 수 있었을 텐데, 나에게 허가 있었더라면 경경 짖는 소리가 저 돌을 놀라게 했을 텐데, 나에게 이빨이 있었더라면 저 시커멓고 징그러운 다리를 와작 물었을 텐데, 나에게 발이 없었다. 나에게 허가 없었다. 나에게 발이 없었다.
 돌 사이로 희미한 빛이 어른거렸다. 뿌옇고 어두운 푸른빛이었다. 저 빛 속으로 들어가 숨고 싶었다. 저 빛 속으로 들어가 쉬고 싶었다. 저 빛 속으로 들어가 몸을 얻고 싶었다.
 “무상아!”

내가 방황하고 흔들릴 때마다 시구 스님은 어김 없이 내 이름을 불렀다. 너력바위 위에서 좌선에 든 스님은 불상처럼 보였다. 온기도 숨도 없이 오직 그 자리에서 빛나는 존재 자체로 보였다. 밝고 투명한 빛이 스님을 감쌌다. 아니, 그 빛은 스님 안에서 나오는 빛이었다. 스님 안에 있는 청정한 기운이 스님을 비추고 그 주위까지 밝게 진동했다.
 “고귀한 존재 무상아! 세상의 모든 것은 네 마음이 지은 것이다. 네 마음이 그린 것이다. 본디 태어남이 없으니 죽음도 없다. 애육이 없으니 질투도 없다. 잘못이 없으니 용서도 없다. 그러니 헛된 욕망에 휩쓸리지 말고,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본래 네 마음자리로 가라.”
 풀여오르던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았다. 복슬이도 검은 무리도 보이지 않았다. 어디선가 경 울는 소리가 들렸다. 지난 10년 동안 이 절에 머물면서 수도 들어들던 구절, 꿈결에서조차 들려오던 말씀.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모습은 다 허망한 것이다. 만약 사물의 겉모습을 보고 그것이 참된 모습이 아닌 줄 알면, 곧바로 여래를 볼 수 있는 것이다.
 - <금강경> 5장 제1구계
 앞에 있는 것은 오직 밝은 광채에 싸인 스님의 모습뿐이었다.
 문득 깨달았다. 그 말씀은 내 안에 있었다. 그 말씀의 소리는 내 안에서 울려 나오고 있었다. 어디선가 산뜻한 바람이 불었다. 바람결에 내가 접점이 스러지고 있었다. 나는 스님에게로 갔다. 나의 가장 바깥부터 안쪽까지 녹여 나갔다. 밝고 투명한 빛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빛 속으로 서서히 들어갔다. <끝>

20년경험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 여행사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여정
YESGOOD.CO.LTD
[문의전화]
02-365-7747
 오시는 길 : 서울 종로구 조계사앞 대불광빌딩2층
 www.mahayeon.com

성지순례

인연이 닿아야 갈수있는 곳
천불천탑의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미얀마 6월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미얀마 7월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펜타야]
미얀마 7월 (3대 성지)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싸이티오]
미얀마 5월 [양곤-바간-헤호]

남방불교의진수 인도/스리랑카
 하늘과 맞닿은 불교성지 티베트/부탄/네팔

인도 11월 (8대성지)
스리랑카 6월
 스리랑카 완전일주 8일
 인도/네팔 15일

티베트(하늘열차) 8월
 동티베트 9월
 성도-문천-마월킹-오명불학원-야장스-관당
 티베트6월
 성도-라싸-암드록초-간제-시가체
 부탄/네팔 8월

대한/라오스/베트남 캄보디아

대만5일 대만3대 사찰순례
대만/홍콩5일 홍콩(2)-대만(2)-화련
태국5일 방콕-아유타야-파타야

라오스/베트남(하롱베이)6일
 하롱베이-루앙프라방

베트남/캄보디아6일 하롱베이-싸엠림

4대불산 중국 [China]
990,000원부터~

[지장도량] 구화산-관음도량] 보티산6일
 [문수도량] 오대산/북경/ 5일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항주 5일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태항산-천계산-요산(208m중원대불)
 공중도시 면산-태항대협곡 5일
 청도/공부/태산6일(웨리크루즈)